

《傷寒論》 梔子豉湯類에 관한 研究

韓相允·金東熙·金聖勳*

I. 緒 論

《傷寒雜病論》은 張²⁴⁾이 內經을 비롯한 多様な 醫書를 中心으로 自己의 長期間 蓄積된 醫療經驗을 結合하여 撰한 醫書로, 原本은 戰亂으로 消失되었다^{2,12-15)}.

지금의 傷寒論은 晉代 王叔和가 《傷寒雜病論》의 傷寒部分을 整理收集한 것으로 報告되고 있으나¹²⁾, 傷寒論의 原文이 極히 簡潔하고 意味가 含蓄되어 있을 뿐 아니라 原本이 그대로 전해오지 않는 關係로, 按方類證, 按法類證 및 分經類證 等, 篇次의 分析에 있어 諸家들의 多様な 解析과 論爭이 있어 왔다.

傷寒論의 構成은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病脈證并治篇 및 辨陰陽易差後勞復病脈并治篇으로 構成되어 있고, 百十三方이 收載되어 있으며, 이들 各篇에는 風寒 外邪를 感受한 後에 人體에 나타나는 病症을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의 區分을 通하여 外感病 및 雜病의 辨證施治의 基本規律을 提示하였다.

最近 傷寒論의 對한 研究로는 洪等¹⁶⁻¹⁸⁾의 傷寒과 四象과의 關係에 對한 많은 文獻的 考察이 있고, 朴¹⁹⁾의 “三陰三陽에 對한 研究”, 金²⁰⁾의 “傷寒論과 溫病論爭의 概括的 研究”, 金²¹⁾의 “傷寒論 六經中風에 對한 考察” 等 傷寒論 條文의 理解를 위한 多様な 研究가 있으며, 이 밖에 孫²²⁾의 柴胡湯證, 蔡²³⁾의 承氣湯證에 對한 考察 等이 있으나 아직 梔子豉湯類에 對한 研究는 接하지 못하였다.

傷寒論에서 梔子豉湯類는 78, 79, 80, 83, 226, 231, 374條 梔子豉湯을 비롯하여, 78條 梔子甘草豉湯, 78條 梔子生薑豉湯, 81條 梔子厚朴湯, 82條 梔子乾薑湯 및 392條 枳實梔子豉湯 等 總 十二個條

六個湯證으로 太陽, 陽明, 厥陰 三個篇에서 볼 수 있다^{13,15)}.

이들은 대부분 汗, 吐, 下後 或은 熱病 後期에 餘熱未盡, 鬱結胸膈, 虛煩不眠, 心中懊憹症의 共通病機와 症狀을 지니나, 그 兼證이 있어서는 相互 差異가 있어 臨床에서 注意를 要한다.

이에 著者는 臨床에서의 效果的인 活用을 위하여 梔子豉湯類의 藥物構成, 適應病症, 病理 및 臨床活用 等을 中心으로 比較分析하여 보았다.

II. 本 論

1. 梔子豉湯

□ 處方構成

梔子 十四介 香豉 四合(綿裹)

【臨床參考用量】 梔子9g 香豉9g

【治法】 清熱除煩

1) 主 治

- (1) 主症 : 虛煩不得眠, 心中懊憹, 舌苔黃膩.
- (2) 副症 : 胸中窒, 心下濡, 或心中結痛, 飢不欲食, 或身熱, 手足溫, 但頭汗出, 或 反覆顛倒.

2) 基本病理 및 方解

本 方은 傷寒에 餘熱이 未盡하고, 裏虛한데, 熱邪가 胸膈에 留優된 證狀을 治療하는 處方이다^{2,3,13-15)}.

傷寒에 汗, 吐, 下한 後에 實熱이 비록 除去되었어도 餘熱이 未盡하여 胸膈에 上優하므로 懊憹, 虛煩不得眠하고, 이와 같은 症狀이 嚴重해지면 反覆顛倒, 不得臥寐하고 心中懊憹와 煩悶이 特히 甚해 暫時도 便하지 않게 되고 或은 心胸窒塞, 鬱悶, 疼痛 等の 症狀이 나타난다. 이는 모두 邪熱이 心胸에 蘊鬱하여 不解한 때문이다^{3,13-15)}.

方 中에 梔子는 苦寒하여 清熱除煩하므로 心中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의 煩熱을 引導하여 下行케 하고²⁵⁾, 香豉는 升散으로 透邪解熱해서 胸中の 鬱熱을 淸宜한다²⁵⁾. 이 두 가지가 相伍하여 一升一降하여 氣機를 流暢시키면 煩熱이 平함을 얻으므로 心煩, 不眠, 懊憹 等도 스스로 낮게 되는 것이다.

《醫宗金鑑》¹⁾에서는 “汗吐下를 거치지 않고 煩한 것은 대부분 熱證에 屬하므로 熱煩이라 하고, 汗吐下를 거친 後에 煩한 것은 大部分 虛證에 屬하므로 虛煩이라 한다. 不得眠한 것은 煩하여 不能臥한 것인데, 이것이 極甚해지면 煩症보다 더욱 甚해져 반드시 反覆顛倒, 心中懊憹하게 된다. 煩은 心煩을, 躁는 腎躁를 말하는 것이다. 身이 反覆顛倒하는 것은 躁함이 조금도 쉽이 없는 것으로 三陰의 死症이고, 心이 反覆顛倒하는 것은 懊憹라 하는데 三陽의 熱症이다. 懊憹는 卽 心中에 欲吐不吐하며 煩優하여 不寧한 象이다. 이는 모두 汗吐下 後에 邪熱이 勝하여 胸中에 客한 所致이므로 汗法을 使用할 表症도, 下法을 使用할 裏症도 없으므로 梔子豉湯을 使用하여 그 病勢를 順하여 涌熱케 하면 스스로 낮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金匱要略論注》²⁶⁾에서는 “虛實에 모두 煩症이 있는데, 下利 後에 있는 것은 이미 虛症에 屬하므로 按之心下濡한 것으로 이는 痞結痛滿에 比할 바가 안된다. 그러므로 梔子로 가볍게 그것을 涌泄하여서 徹熱케 한 것이다. 大概 香豉는 煩悶을 主하는데, 또한 能히 調中下氣하고, 梔子도 淸心하여 肺, 胃, 大小腸에 入한 鬱熱을 淸解한다.”고 하였다.

綜合하면, 本方은 外感熱病에 表證이 이미 解散되었으나, 餘熱이 未盡하여 心中煩熱, 煩躁, 懊憹, 不得眠, 舌紅苔黃, 脈數한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이다.

3) 類方鑑別

1. 小兒蕃熱이 있어 身熱狂躁, 昏迷不食하면 大梔子 7개를 擘아서 豆豉 半兩과 함께 均等히 3錢을 달여 2錢이 되게 해서 조금씩 때때로 服用하거나 때를 맞추어서 服用하면 吐하든 吐하지 않든 效果가 있게 된다. (《小兒藥證直訣》)

(1) 梔子豉湯類鑑別

區分	病因病機	治療原則	主要證狀
梔子豉湯	熱優胸膈	淸熱除煩	虛煩不得眠, 心中懊憹, 甚卽胸中窒, 心中結痛
大陷胸湯	水結胸膈	泄熱逐水	胸中煩熱懊憹, 心下硬滿而痛, 不可近
實積滯	實積滯	泄熱逐水	胸中煩熱懊憹, 心下硬滿而痛, 不可近
乾薑湯	中陽受損	溫中散寒	或腹滿, 腹痛

(2) 結胸證과의 鑑別

本方證의 “虛煩不得眠”, “心中結痛”과 “但頭汗出” 세 가지 症狀은 結胸證과 鑑別해야 한다. 大陷胸湯과 本方證은 모두 大下한 後에 邪熱이 內陷한 것으로 모두 頭汗出과 胸腹痛 等の 症狀이 있다.

그러나 硬痛의 程度가 다르고 病機도 역시 다르다. 大陷胸湯證은 熱實結胸으로 胸膈에 水結이 있고, 上濕下燥하고, 不大便五六日, 從心下至小腹硬滿而痛, 硬如石, 痛不可近한 것이고, 本方證은 但只 餘熱이 內優하여 心中懊憹, 胸中窒塞한 것으로 비록 “心中窒痛”이 있으나 不石硬하고, “痛不可近”의 症狀이 없어 水結胸膈이나, 實積滯가 없는 것이므로 治法도 또한 다른 것이다.

(3) 酸棗仁湯과의 鑑別

本方과 酸棗仁湯은 모두 虛煩不眠의 症狀이 있지만, 本方의 證狀은 虛煩不眠, 心中懊憹外에도 虛熱의 症狀이 두드러진다. 酸棗仁湯에는 熱證이 없다.

4) 臨床應用

現代臨床에서는 外感病이 氣分에 들어간 輕症일 때 發熱¹⁾, 心煩不眠²⁾, 胸悶不舒³⁾의 症狀이 보이며

2. 痘疹이 出하여 煩燥한 者를 治한다. 東垣은 火가 心에 入하면 煩하고 水가 腎에 入하면 燥하므로 모두 心火로 因한 것이라고 했다. 大개 火가 旺盛하면 金이 燥하여 水가 虧虛하게 된다. 그러므로 心腎이 合하여 煩燥를 이루면 마땅히 梔子豉湯을 쓴다. (《內外傷辨論》)

甚하면 坐臥不安⁴⁾, 舌紅, 苔微黃, 脈數이 나타날 때 쓰인다. 역시 神經失調症과 神經機能의 紊亂에 本方을 쓸 수 있다.

▷ 臨證加減法

㉓ 本方에 鬱金, 瓜蒌皮, 杏仁 등을 加하면 苦辛의 輕劑가 되어 治療範圍가 “虛煩不寧”뿐 아니라 脘悶不飢, 大小便難, 身熱汗出神夢 等の 症狀까지 使用할 수 있다. 이로부터 傷寒化熱뿐 아니라 또 한 暑, 燥, 風溫 等の 外感溫病이나 內科雜病까지 治療할 수 있다.

① 風溫 : 形寒하면 桑葉을 加해 達表하고, 口乾有痰하면 枇杷葉, 竹茹를 加하고, 邪熏腫中으로 神迷하면 菖蒲, 鬱金의 芳香으로 壯神하고, 溫邪鬱結로 肺氣가 不通하여 脘痞, 形寒하면 桔梗을 加하고, 痞, 頭脹, 發疹이 上焦肺鬱로 된 것은 苦辛이 比較的 輕한 黃芩, 枳實汁을 加한다.

② 燥證 : 初期에 薏苡仁, 橘紅, 北沙參을 加한다.

③ 暑證 : 初期에 竹葉, 滑石을 加하고, 或은 瓜蒌皮를 去한다.

④ 內科雜病 : 腸痺便閉하면 紫菀, 杏仁, 瓜蒌皮를 加해 降氣하고, 痰飲, 口涎이 있으면 半夏曲, 竹茹를 加해 化飲하고, 酒毒이 遺肺하여 熱中하고 久咳聲嘶하고, 睡眠時에 呼吸이 困難한 者는 石膏를 加해서 寒冷鎮壓하고, 肺痺脘痞, 血絡瘀結, 陳腐鬱結하면 桃仁, 降香을 加해서 通絡化濁한다.

⑤ 溫病의 初期에 邪氣가 衛分에 있으면 參酌해서 藿香, 佩蘭, 杏仁, 橘皮, 薄荷, 連翹, 通草 등을 加하여 “宣透”를 爲主로 하고, 邪氣가 氣分에 있으면 參酌해서 連翹, 黃芩, 枳殼, 竹茹, 滑石, 鬱金, 菖蒲, 茵陳 등을 加하여 “清利”를 爲主로 한다.

㉔ 胃氣欠和, 不飢能食, 不寐한 때에는 本方에 枳實, 半夏, 廣皮白을 加해서 通降胃氣케 한다.

▷ 衍方

㉕ 梔子甘草豉湯 : 本方에 甘草를 加한 것으로 本方證에 少氣가 있는 者에 使用한다.

㉖ 梔子生薑豉湯 : 本方에 生薑을 加한 것으로

本方證에 嘔症을 兼한 者에 使用한다.

㉗ 梔子厚朴湯 : 本方에서 豆豉를 去하고, 枳實, 厚朴을 加한 것으로 本方證에 胸痺腹脹을 兼한 者에 使用한다.

㉘ 梔子柏皮湯 : 本方에서 豆豉를 去하고 黃栢, 甘草를 加한 것으로 身熱發黃에 使用한다.

㉙ 枳實梔子豉湯 : 本方에서 豆豉를 重用하고 大黃을 加한 것으로 “下後心煩腹滿, 臥起不安者”를 治療한다. (以上은 모두《傷寒論》의 處方임.)

㉚ 梔子大黃湯 : 本方에 大黃, 枳實을 加한 것으로 酒疸, 心中懊憹 或 腹滿熱痛 等の 陽黃을 治療한다. (《金匱要略》)

㉛ 梔子烏梅湯 : 本方에 黃芩, 甘草, 柴胡, 烏梅, 生薑, 竹葉을 加한 것으로 傷寒後의 虛煩不得眠, 心中懊憹를 治療한다. (《類證活人書》)

【文獻參考】

1. 本方을 夏季의 消化障碼로 惹起된 急性胃炎에 常用하면 良好한 效果를 얻을 수 있다⁵⁾.

5) 臨床例

(1) 懊憹

證狀 : 傷寒을 앓았는데, 發熱하고 數日後에 心中懊憹, 坐臥不安한 症狀을 보였다. 患者는 心煩을 참기 어려웠다. 脈數, 舌紅, 苔黃하였다.

辨證 : 火鬱로 因한 虛煩證

治療 : 梔子豉湯原方을 服用하였는데, 單藥을 服用한 後에 作吐하는 反應이 일어날 것을 미처 알려주지 않았다. 以後에 患者가 服藥한 後 吐하여 집사람들이 놀라 方藥이 잘못된 것으로 疑心하여 다시 診察을 받으려 왔으나, 患者를 보니 吐後에 자고 있었다. 情況을 說明해주시니 사람들도安心하였다.

考察 : 이를 볼 때에 服藥後에 確實히 吐할 境遇가 있는데, 이때는 服用한 後의 反應을 미리 알려줘야 不必要한 誤解를 막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本方은 催吐劑가 아닌데 어떻게 때로 服藥後에 吐를 誘發하는 것인가? 本例에 있어서는 正氣가 邪氣를 몰아내는 表現으로 된 것이다. 胸

3. 霍亂吐下後에 心腹脹痛한 것을 治療한다. (《補輯肘后方》)

4. 蛤蟆黃으로 舌上에 青筋이 들고, 晝夜로 잠을 자지 못할 때에 治療한다. (《經濟總錄》)

5) 《陝西新醫學》1965;7:34

膈에 火鬱되어 胸陽이 痠困되었는데, 服藥後에 火鬱이 正氣의 得伸함을 얻어 正氣가 邪氣를 外出케 한 것이므로 吐症은 病이 治療되려는 機轉이 된다. 그러나 本方을 服用한 後에 吐하면서 病이 解産되는 것은 普遍的인 것은 아니다. 吐하지 않고도 火鬱이 得泄되어 心煩이 除去되는 境遇도 往來 볼 수 있다⁶⁾.

(2) 食道炎

證狀 : 平素에는 胃病이 없었는데, 近來에 熱物을 強食한 後에 吐血을 몇 번하고, 膈內巨痛이 있으며 이것이 胃脘까지 波及되었다. 食入하면 膈巨痛이 加劇되었고, 脛痞粗雜, 懊憹不安, 不欲飲食, 舌質紅, 苔薄黃, 脈滑하였다.

辨證 : 胃傷하여 熱邪가 上優한 것이다.

治療 : 梔子豉湯加味方을 使用하였다. 妙山梔子 9g, 香豉 9g, 黃連 1.5g(藥物泡服), 蒲公英 9g를 3劑連服한 後에 膈痛이 멈추었고 能食하게 되었다.

考察 : 本方은 本來 傷寒의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覆顛倒, 心中懊憹”의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인데, 清熱除煩, 和胃解鬱하는 效力이 있다. 本例에서는 強食으로 傷胃하여 胃絡이 傷하여 吐血한 것이며, 胃傷하여 熱瀉가 上優하여 膈脘疼痛, 懊憹不安한 것이다. 治療하는데 本方에 黃連, 蒲公英을 加한 것은 清熱和胃한 것으로 역시 仲景方에서 取한 것이다⁷⁾.

(3) 傷寒誤汗, 邪熱陷入胸中

性別 및 年齡 : 男, 26歲.

證狀 : 太陽傷寒을 5,6日 앓았는데 不解하였다. 發熱, 惡寒頭痛, 周身疼痛, 惡心作嘔하고, 脈浮數하였다.

辨證 : 寒邪가 抑鬱되어 化熱된 것이다.

治療 : 辛涼解表의 治法이 마땅한데, 醫師가 治療時에 但只 症狀에 根據하고 脈象을 參考하지 않아 麻黃湯으로 疏表散寒하였다.

② 再診

證狀 : 汗出한 後에 寒熱身痛은 모두 나왔으나, 心煩不寧한 症狀이 나타났으며, 口乾咽乾食少, 不得眠, 脈滑數有力하였다.

辨證 : 表邪已解하였으나 餘熱이 未清한 症狀
治療 : 加味梔子豉湯을 使用하였다. 生梔子 10g, 淡豆豉 10g, 青連翹 12g, 黃芩 10g, 元參 10g, 抗寸冬 10g, 粉甘草 10g로 1劑를 服用한 後에 心煩이 安定되고, 잠잘 수 있었다. 다시 3劑를 連服한 後에 諸證이 모두 減少하였고, 精神도 回復되었다⁸⁾.

6) 傷寒論原文

78.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覆顛倒 心中懊憹 梔子豉湯主之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

79. 發汗若下之 而煩熱 胸中窒者 梔子豉湯主之

80. 傷寒五六日 大下之後 身熱不去 心中結痛者 未欲解也 梔子豉湯主之

83. 凡用梔子湯 病人舊微瀉者 不可與服之

226. 陽明病 脈浮而緊 咽燥 口苦 腹滿而喘 發熱汗出 不惡寒 反惡熱 身重 若發汗則躁 心憤憤及譫語 若加燒針 必怵惕 煩躁不得眠 若下之 則胃中空虛 客氣動膈 心中懊憹 舌上胎者 梔子豉湯主之

231. 陽明病 下之 其外有熱 手足溫 不結胸 心中懊憹 饑不能食 但頭汗出者 梔子豉湯主之

374. 下利後更煩 按之心下濡者 爲虛煩也 宜梔子豉湯

7) 鍼灸配穴

(1) 大椎, 至陽, 內關, 築賓穴을 取하여 清熱, 開鬱, 除煩시킨다.

(2) 膈俞, 陽谿, 水泉, 郄門穴을 取하여 通經活絡, 清瀉火鬱시킨다.

(3) 合谷, 復溜, 然谷, 郄門穴을 取하여 宣導氣血, 清心除煩시킨다.

(4) 大陵, 外關, 郄門, 交信穴을 取하여 降火滋陰, 開鬱除煩시킨다.

2. 梔子甘草豉湯

□ 處方構成

梔子十四介 甘草二兩(炙) 香豉四合(綿裹)

【臨床參考用量】梔子 9g, 甘草 6g(炙) 香豉 9g(綿裹)

【治法】清熱除煩, 補益中氣

6) <傷寒論詮解> 天眞科學技術出版社, 1983

7) <經方應用>

8) <傷寒論臨床實驗錄> 天眞科學技術出版社, 1984

1) 主治

: 梔子豉湯證 兼氣短者.

2) 基本病理 및 方解

本 方은 梔子豉湯의 煩躁懊憹의 主症 外에도, 少氣(氣短) 의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이다 2,3,13-15).

氣短은 곧 中氣의 虛로 因한 것이므로, 梔子豉湯을 使用하여 去熱함으로 虛煩을 그치게 할 뿐 아니라, 다시 甘草를 加하여 中氣를 補益하게 한 것이다. 中氣가 充足되면 氣短의 症狀도 스스로 낫게 되는 것이다^{2,13,14)}.

《傷寒懸解》²⁶⁾에서는 “香豉, 甘草는 胃氣를 調理하여 中氣를 補益하고, 梔子는 瘀濁함을 滌潔하고 虛煩을 淸解하게 한다.”고 하였다.

《傷寒直解》²⁶⁾에서는 “少氣라는 것은, 中氣가 虛하여 上下로 交通하지 못하여 생긴 것이므로, 甘草를 加하여 中氣를 補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綜合하면, 本 方은 梔子豉湯에 甘草를 加한 것으로, 梔子豉湯證에 少氣의 症狀이 兼하여 나타난 것을, 甘草를 加하여 中氣를 補益케 함으로 治療하는 處方이다.

3) 臨床應用

(1) 오래된 밥, 傷한 肉類, 오래된 野菜 등을 먹고 發病한 것을 治療한다. (《千金方》)

(2) 梔子豉湯證에서 急迫한 것을 治療한다. (《方極》)

(3) 膈噎食不下하는 것을 治療한다.

【文獻參考】

本 方을 急性食道炎에 使用하였는데, 熱湯으로 因한 것이나, 呑咽燒酒로 因한 것이나 關係없이 모두 1-2劑를 服用하여 效果를 거두었다⁹⁾.

4) 臨床例

(1) 某人的 妻가 産後에 出血이 過多하여 忽然히 脣舌色이 蒼白해지고, 氣陷된 것이 마치 자는 듯하고, 脈도 역시 없는 듯하여, 危殆하기가 당장 죽을 것 같았다. 梔子甘草湯에 川芎, 苦酒를 加해서 주었는데, 半時동안 五, 六貼을 먹었더니 忽然

히 精神이 맑아지고 깊은 잠이 들었다. (《傷寒論今釋》)

5) 傷寒論原文

78.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覆顛倒 心中懊憹 梔子豉湯主之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

6) 針灸配穴

大椎, 至陽, 內關, 築賓穴을 取하여 淸熱, 開鬱, 除煩시킨다

3. 梔子生薑豉湯

□ 處方構成

梔子 十四個(擘) 生薑 五兩(切) 香豉 四合(綿裹)

【臨床參考用量】 梔子 9g 香豉 9g 生薑 15g.

【治法】 淸熱除煩, 散飲止嘔.

1) 主治

: 梔子豉湯證 兼見嘔逆者.

2) 基本病理 및 方解

本 方은 梔子豉湯證의 火鬱한 熱邪가 動飲케 하여, 胃氣가 上逆하므로 嘔吐症이 같이 나타나는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이다^{2,3,13-15)}. 方 中에 生薑은 散飲하므로 止嘔하게 하는 效能이 있다²⁶⁾.

《醫宗金鑑》¹⁾에서는 “嘔症이 보이는 것은 熱이 그 飲을 逼迫하여 된 것이므로, 生薑으로 飲邪를 散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傷寒論眞解》²⁶⁾에서는 “嘔症이 보이는 것은 中氣가 逆하여 위로 相交하지 못하여 된 것이므로, 生薑을 加하여 中氣를 通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綜合하면, 本 方은 鬱熱이 胃氣를 逼迫해, 飲氣와 함께 上逆하여 나타나는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이다. 그러므로 梔子豉湯에 生薑을 加하여, 降逆止嘔, 和胃散飲의 作用으로, 梔子和 香豉의 火鬱을 宣泄하는 效能과 協力하게 한 것이다.

3) 臨床例

(1) 證狀: 便血을 數個月동안 하여 服藥하고 조금 나왔으나 다만 身體에 光色이 없고 面上 및 兩脚에 浮腫이 있으며 心中이 煩悸하고 머리가 조금 아프며 때때로 嘔逆하고 寸脈이 微하다.

治療: 梔子生薑豉湯 投與하였더니 諸症狀이 治

9) 《陝西新醫藥》1974;9:41

療되었다¹⁰⁾.

(2) 證狀 : 胃脘痛이 있어 醫師가 治療하였으나 痛症이 減하지 않고 도리어 大便秘結, 胸中滿悶不舒, 懊憹欲吐, 轉轉難臥, 食少身痛의 症狀이 있는 지 七, 八日이 되었고 脈이 沈弦而滑하였다.

辨證 : 舌黃而貳濁한 것은 宿食으로 病이 된 것으로 처음부터 消道之劑를 썼으면 나왔을 것이나 桂附香砂의 藥을 使用하여 挾食致虛하게 된 것이다.

治療 : 補法, 下法을 쓸수 없고 心中懊憹欲吐의 症狀이 있으므로 梔子生薑豉湯을 投與했다. 生梔子9g, 生薑9g, 香豉15g으로 分溫하여 兩服한 後에 嘔吐가 다시 發하지 않고 諸證이 모두 좋아지고 밤에 便安히 잠들고 大便이 正常的이 되었으며, 食欲도 增進되었다.

考察 : 梔子豉湯, 梔子甘草湯, 梔子生薑豉湯의 配伍한 妙가 있으니 仲景이 開鬱火에 黃連을 쓰지 않고 梔子를 쓰며 短氣에 人蔘을 쓰지않고 黃芪와 甘草를 쓰며 止嘔吐에 半夏를 쓰지 않고 生薑을 쓰니 臨床하는 者가 詳細히 研究할 事項이다¹¹⁾.

4) 傷寒論原文

78.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覆顛倒 心中懊憹 梔子豉湯主之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 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

5) 鍼刺配血

大椎, 至陽, 內關, 築賓穴을 取하여 清熱, 開鬱, 除煩시킨다.

4. 梔子厚朴湯

□ 處方構成

梔子 四十個(擘) 厚朴 四兩(炙,去皮) 枳實 四枚(水浸,炙令黃)
--

【臨床參考用量】 梔子 9g 厚朴 12g 枳實 9g.

【治法】 清熱除煩, 寬中消滿.

1) 主治

: 心中煩熱, 臥起不安, 腹脹滿不通, 苔黃, 脈數.

2) 基本病理 및 方解

本方은 虛煩과 腹滿이 兼하여 나타나는 症狀을 治하는 處方이다^{3-5,11-15)}. 傷寒에 下法을 使用한 後

에, 邪가 入裏하여 化熱되면 火가 胸膈에 鬱滯하므로, 心煩, 臥起不安하게 되고, 熱이 脘腹까지 미치면 氣機가 障礙를 받게 되므로 腹滿의 症狀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腹滿은 熱邪가 有形的 積滯와 相結된, 陽明腑의 胃家實로 因한 것이 아니라, 但只 無形의 熱이 蘊鬱된 腹滿으로, 그 特徵은 腹滿하되 不通한 것으로, 氣機가 壅滯된 病證에 屬한다^{5,9,13,15)}.

本方은 梔子豉湯과 小承氣湯의 兩方을 加減하여 이루어 졌는데, 梔子豉湯에서 豆豉를 빼고, 小承氣湯에서 大黃을 뺀 것이다. 方中에 梔子は 清熱除煩하고, 厚朴, 枳實은 消滿하는데, 豆豉를 쓰지 않은 것은 熱邪가 比較的 深入해서 宣發하는 것이 알맞지 않기 때문이며, 大黃을 쓰지 않은 것은 邪가 燥實하지 않아, 枳實, 厚朴의 理氣消滿²⁵⁾으로도 效果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醫宗金鑑》¹⁾에서는 “傷寒論 中, 下後에 滿하되 不煩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熱이 入胃하여 된 實滿으로, 이는 承氣湯으로 下하고, 둘째는, 寒氣가 上逆하여 된 虛滿으로 厚朴, 生薑, 甘草, 半夏, 人蔘湯으로 溫케 한다. 또 煩하되 不滿한 것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熱邪가 入胸하여 된 虛煩으로, 竹葉, 石膏로써 清케 하고, 둘째는, 懊憹하여 欲吐하려는 心煩으로, 梔子豉湯으로 吐하게 한다. 여기서는 煩하면서 또 滿하므로, 滿이 甚하면 藥을 수 없고 煩이 甚하면 누울 수 없어서, 臥起不安이 된 것이다. 이는 三陽의 實證도 아니고, 또한 三陰의 虛症도 아닌, 熱과 氣가 互結하여 胸腹之間에 壅結한 것이므로, 梔子, 枳實, 厚朴으로 熱氣를 涌出케 하면, 胸腹이 和解하여 煩이 스스로 去하고, 滿 또한 스스로 消失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傷寒來蘇集》⁴⁾에서는 “妄下한 後에 心煩腹滿하고 起臥不安한 者는 熱이 이미 入胃한 것이므로, 梔子로 除煩하고 枳實과 厚朴으로 泄滿하여, 心腹을 雙解하는 妙가 있게 한 것으로, 이는 小承氣湯의 變方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綜合하면, 本方은 梔子豉湯과 小承氣湯을 加減,

10) 《皇漢醫學》

11) 《傷寒論匯要分析》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4.

合方하여, 熱邪가 胸膈을 擾亂케 하고 兼하여 腹滿케 하여 나타나는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이다.

3) 類方 鑑別

區分	病因病機	治法	主治	藥物構成
梔子厚朴湯	傷寒下後 熱擾胸膈 兼腹滿	清熱除煩 寬中消滿	心中煩熱 臥起不安 腹滿	梔子 厚朴 枳實
枳實梔子豉湯	大病差後 勞復	清宣上部 之鬱熱	復發熱口 渴心煩懊 憊胸脘脹 滿或腹滿 拒按	枳實 梔子 香豉

4) 臨床 應用

(1) 胸腹煩滿한 者를 治療한다.

(2) 下한 後에 心煩腹滿, 臥起不安하면 世醫들은 病이 끝나지 못하였다 하여 오히려 三承氣湯을 써서 誤治하기 때문에 長沙氏가 이런 類의 方法을 세운 것이다. 措治할 때 가장 注意 해야 할 것은 心煩이 虛煩이고, 腹滿이 또한 實滿이 아닌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類聚方廣義》)

5) 臨床 例

證狀 : 心煩懊憊, 晝輕夜重하고, 恒常 바깥으로 나가 바람을 쐬려 하고 脘腹氣脹이 마치 物件이 阻塞하는 感이 있었다. 脈弦數, 舌尖紅, 根部苔黃, 小便色黃하고 大便正常이었다.

辨證 : 胸膈에 火가 鬱하여 胃脘이 不和한 것이다.

治療 : 本 方을 使用하여 效驗을 보았다¹²⁾.

6) 傷寒論原文

81. 傷寒下後 心煩腹滿 臥起不安者 梔子厚朴湯 主之

7) 鍼刺配血

中衝, 隱白, 間使, 交信穴을 取하여 除煩開鬱, 理氣消腸시킨다.

5. 梔子乾薑湯

□ 處方構成

梔子 四十個(擘) 乾薑 二兩

【臨床參考用量】 梔子 9g 乾薑 6g.

【治法】 清上溫下.

1) 主治

(1) 主證 : 身熱, 微煩, 舌紅, 苔黃, 脈弦數.

(2) 副證 : 腹滿或腹痛, 食少便澹.

2) 基本病理 및 方解

本 方은 邪熱이 未除한데 大下하여 脾胃의 陽氣를 損傷케 하거나, 或 平素 脾胃가 虛寒한데 다시 邪熱에 感受되어, 上熱下寒이 明顯하게 나타나는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이다^{2,3,9,13-15)}.

熱邪가 胸膈에 陷入하면, 身熱이 不去하면서 煩熱이 있게 되고, 脾胃가 虛寒하면, 大泛濫 或 腹滿腹痛의 症狀이 나타난다^{2,3,9,15)}.

方 中에 梔子是 苦寒하여 胸膈의 邪熱을 清케 하고²⁵⁾, 乾薑은 辛熱하여 脾胃의 虛寒을 溫케 한다²⁵⁾. 二藥의 性味가 寒, 溫으로 서로 다르나 併用한 것은, 相反相成케 하여, 梔子의 苦寒함이 脾胃를 損傷시키지 못하게 하고, 乾薑의 溫熱함이 上擾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다. 參考로 原文의 “醫以丸藥大下之”에서 丸藥은 甘遂 或 巴豆의 制劑로, 王肯堂은 “丸藥은 이른바 神丹甘遂인데 이는 或 巴豆로도 만든다”라고 하였다.

《傷寒來蘇集》⁴⁾에서는 “丸藥으로 大下之했다면 寒氣가 留中함을 알 수 있다. 또 心微煩하지만 懊憊가 없으므로 吐劑는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梔子로는 解煩하고, 乾薑은 倍로 하여 內寒을 쫓으면서도 表熱을 解散케 한 것으로, 寒因熱用하고 熱因寒用해 二味로 方을 이룬 것이니, 三法을 갖춘 것이다.”라고 하였다.

《傷寒方論》²⁶⁾에서는 “身熱이 不去하고 또 煩함도 微微한 것은, 本來 侵入한 邪氣가 적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大下를 거쳤으므로 中焦가 虛해진 것도 考慮해야 하는데, 만약 他藥으로 補하면 邪氣를 도울 수가 있으므로, 오직 乾薑으로 溫中케 한 것으로, 中焦가 溫하게 되면 氣壯하여 邪氣가 더이상 深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梔子是 色赤하고 味苦해, 入心하여 治煩한다. 豆豉는 色黑하고 味甘해 入腎하여 治躁하는데, 여기서는 微煩하므로 豆豉를 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綜合하면, 本 方은 清熱散寒의 作用으로, 上熱下

12) 《傷寒論詮解》江蘇人民出版社, 1956

寒하고 虛實이 錯雜되어 나타나는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이다.

3) 類方 鑑別

處方區別	共通點	病理病機	主要脈證	藥物構成
本方	上熱	因丸藥大下之, 損傷脾胃之陽, 而致中焦虛寒	身熱, 微煩, 舌紅, 苔黃.	梔子, 乾薑
甘草瀉心湯	下寒	再次誤下 胃氣重虛 客氣上逆	完穀不化, 腹中雷鳴, 嘔心煩不安	炙甘草, 人參, 半夏, 黃芩, 黃連, 乾干, 大棗.

4) 臨床 應用

現代 臨床에서는 胃炎, 膽石症, 食道癌¹³⁾에서 本方의 證狀이 함께 나타나면 使用할 수 있다. 또한 梔子鼓湯證에 大便微瀉¹⁴⁾이 있으면 쓸 수 있다.

5) 臨床 例

(1) 疫痢

疫痢가 流行하여 사람들의 症狀이 모두 비슷했다. 胸滿煩躁, 身熱殊甚, 頭汗如流, 腹痛下痢, 色如鹿煤, 行數無度한 症狀이 있었다. 世醫들이 治療했으나 모두 죽고 先生이 桃仁承氣湯과 梔子乾薑湯으로 번갈아 使用한 사람들의 목숨만 救하였다¹⁵⁾.

(2) 胃痛便瀉

性別 및 年齡 : 男, 45세.

證狀 : 平素 胃痛이 있으며 時發時止하였는데, 端午節에 過食하고 또 烈酒를 마셨다. 醉하여 자다가 갑자기 胃痛을 呼訴하였다. 編者가 가서 往診해 보니 面赤, 辰紅, 苔黃, 脈弦數, 胸中煩熱疼痛, 心煩急躁, 腹痛欲大便, 便瀉, 手不溫, 胸腹不拒按의 症狀이 있었다. 患者가 呼訴하길 消化不良이 있고 大便을 하루에 두차례 보고 稀瀉하는 境遇가 많다고 하였다.

治療 : 患者가 面赤辰赤舌紅 等の 證狀이 있으므로 마땅히 苦寒한 藥으로 清火해야 하고, 또한

平素 大便瀉, 手不溫하였는데 脾陽虛이므로 溫運劑를 써야 한다. 苦寒한 藥으로 梔子를 쓰고 溫脾陽에 乾薑을 쓰고 止胃痛에는 枳殼을 쓰고 또한 酒毒을 푸는데 葛花를 使用했다. 4가지 藥을 各 9g으로 急히 服用케 하니 만나질 지나서 患者가 胸痛이 漸漸 減少하고 便安히 잠에 들었으며 또한 大便이 正常的으로 되었다¹⁶⁾.

6) 傷寒論原文

82. 傷寒, 醫以丸藥大下之, 身熱不去, 微煩者, 梔子乾薑湯主之.

7) 鍼刺配血

大陵, 神門, 外關, 建里穴을 取하여 調暢氣機, 除煩解熱시킨다.

6. 枳實梔子鼓湯

□ 處方構成

枳實 三枚(炙) 梔子 四十個(擘) 香豉一升(綿裹)

【臨床參考用量】枳實 6g 梔子 9g 香豉 12g.

【治法】調中化滯, 解毒除煩.

1) 主治

: 大病或久病初愈, 因過勞而病復發, 故復發熱, 症見口渴, 心煩懊憹, 心下痞塞, 或胸脘脹滿, 或大便硬, 腹滿拒按, 苔黃, 脈滑或數.

2) 基本病理 및 方解

本方은 大病이나 久病이 조금씩 治愈되는 때에, 過勞하여 病이 다시 發한 “勞復”의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이다^{2,3-5,13-15)}.

다시 過勞하면 陽熱이 生하는데, 아직 經絡의 微解한 熱邪가 이를 얻어 熾盛하게 되므로, 疾病이 다시 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發熱, 口渴, 心煩懊憹, 心下痞 等の 症狀이 나타난다^{2,3,13,14)}.

本方은 梔子鼓湯에 枳實을 加한 것으로, 枳實로 寬中行氣케 하고²⁵⁾, 梔子로 清熱除煩, 豆豉로 透邪散熱케 한 것이다²⁶⁾. 淸漿水로 藥을 달인 것은, 그 性凉하고 善走함을 取하여, 開胃化滯, 解渴除煩의 效果를 높이게 한 것이다¹¹⁾.

14. 治赤白痢, 無問日數老少, 干姜散方. 即本方入薤白七莖, 豆豉半合, 煎服. (《經惠方》)

15) 《皇漢醫學》

16) 《傷寒論方運用法》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5

13. 二氣散, 即本方用炒梔子, 治陰陽痞結, 咽膈噎塞, 狀若梅核, 妨碍飲食, 久而不愈, 即成翻胃. (《楊氏家藏方》)

《傷寒論辨證廣注》²⁶⁾에서는 “勞復證이란 것은, 過勞하면 氣를 逆上해 熱氣가 胸中에 浮越하게 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枳實로 君을 삼아 寬中下氣시키고, 梔子로 臣을 삼아 虛煩을 除하고, 香豉로 佐를 삼아 勞熱을 解하게 한 것이다. 또한 病이 나온 後에 다시 發한 것이므로 清漿水를 使用하여 胃氣를 돕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傷寒實錄集》⁵⁾에서는 “大病이 新瘥할 때는, 아직 血氣가 回復되지 않으므로, 만약 強力하게 勞力을 하면, 아직 未除한 餘熱이 外浮하게 된다. 枳實, 梔子は 下熱케 하고, 豆豉로써 散熱케 하여 表裏를 治하는 方劑이나 氣味가 모두 輕薄하여 病後에 다시 發함을 治하는데 더욱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綜合하면, 本方은 祛邪安正의 治法으로, 邪熱을 清解하여, 大病 瘥後에 다시 勞復이 된 것을 治療하는 處方이다.

3) 臨床應用

(1) 食復, 勞復, 身熱, 心下痞滿하여 마치 宿食不下하는 것 같이 大便秘實하고 脈中有力한 者에게 大黃을 加할 수 있다. (《傷寒蘊要》)

(2) 膏粱之物을 過多하게 食하여 煩熱悶亂케 된 者도 역시 服用한다. (《內外傷辨惑論》)

(3) 本方은 梔子豉湯證에 胸滿이 있는 者를 治하고, 梔子大黃湯은 前方에 閉證이 있는 者를 治한다. (《方極》)

(4) 以上の 四方(梔子豉湯, 梔子甘草湯, 梔子生薑湯과 本方)은 비록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大概 差後宿食에는 惟獨히 本方이 가장 좋다. 그러나 大黃을 加하지 않은 것은 功을 얻지 못할 것을 꺼려한 때문이다. (雉問煥)

(5) 무릇 大病이 新瘥하여 血氣가 回復되지 않았는데 勞動이나 飲食을 過度히 하여 心胸이 滿悶하고 或은 煩熱한 者는 此方을 投與하여 調攝하면 瘥하게 된다. 만일 大便이 不通하고 宿食이 있는 者는 枳實梔子大黃豉湯이 좋다. (《類聚方廣義》)

▷ 臨證加減法

㉠ 本方에 宿食을 兼하여 飲食物이 消化되지 않고 胃腸內에 停滯되어 膨滿, 按之腹緊하고 또한 且伴有便秘 등의 證狀이 나타날 때는 大黃을 加하

여 積滯를 掃蕩한다. (本方原文 後의 加減法)

㉡ 枳實梔子大黃豉湯 : 本方과 藥味가 相同하지만, 但只 枳實의 量이 二枚로 增量된 것으로, 黃疸病으로 廓黃發熱, 心中懊憹 或熱痛, 苔黃膩, 脈滑數의 證狀이 나타날 때에 使用한다. (《金匱要略》)

4) 臨床例

(1) 食復

證狀 : 老人이 夏日에 病이 있어 白虎湯을 服用하고 治愈된 後에 飲食不節하여 病이 다시 생겨 發熱腹脹의 症狀이 發하였는데 消導藥을 먹은 後에도 效果가 없었다. 白虎湯을 다시 먹어도 또한 無效하였다.

辨證 : 熱盛口渴, 舌黃便閉의 症狀이 있는 것은 食復이 된 것이다.

治療 : 枳實梔子湯에 大黃을 加하여 投與하였는데 一齊를 服用한 後 조금 나아져, 二劑를 服用한 後 完治되었다 (《杏軒醫案初集》)

(2) 春溫食復

性別 및 年齡 : 女, 28歲.

證狀 : 患者가 봄에 溫病이 있어 治療過程이 한 달 정도 걸려서 거의 回復되었다. 처음 나온 後에 患者가 腹空하여 家人들이 醫師에게 말하여 消化되기 쉬운 飲食만 먹게 하였다. 그 後 患者가 물만두를 먹고 싶어 하여 家人들이 모두 回復되었다고 생각하여 주었는데, 午後에 胃脘膨悶, 噯氣不除, 心煩不寐, 身現發熱(38℃), 頭部眩暈, 不思飲食, 脈象浮大의 證狀이 나타났다.

辨證 : 이는 氣血이 虛弱하여 宿病이 다시 發한 것으로 飲食不節하여 停食化熱하므로 心煩, 發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治療 : 枳實梔子湯으로 消滯清熱해야 한다. 加味枳實梔子湯을 投與하였다. 枳實10g, 生梔子10g, 淡豆豉15g, 建軸10g, 生薑3g, 廣鬱金6g, 生山藥15g, 甘草3g으로 一齊를 服用한 後 熱이 退하고 煩滿이 크게 減少되었다. 繼續해서 二劑를 먹으니 諸症이 모두 消失되었다. 그 後 養陰清熱和胃하는 藥으로 調理케 하였다¹⁷⁾.

17) 《傷寒論臨床實驗錄》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4

5) 傷寒論原文

392. 大病差後, 勞復者, 枳實梔子湯主之

7. 梔子柏皮湯

□ 處方構成

肥梔子 十五個(擘) 甘草 一兩(炙)
黃柏 二兩

【臨床參考用量】肥梔子 10g 炙甘草 3g 黃柏 6g.

【治法】清泄濕熱.

1) 主治

(1) 主症: 身目俱黃, 小便黃赤, 發熱, 心中懊憹, 苔黃, 脈弦數或弦大滑實.

(2) 副症: 心煩, 無汗或汗出不徹, 小便不利.

2) 基本病理 및 方解

本方은 三焦에 鬱結된 濕熱이 풀리지 않아 나타나는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이다.^{2,3,9,11,13-15)}

傷寒에 身發熱하고 一身과 面目이 모두 發黃한 것은 陽黃으로, 濕熱이 鬱蒸하기 때문인데, 濕熱이 三焦를 熏蒸하여 外透하면 心中懊憹, 身無汗 或 汗出不絕, 小便不利 等の 症狀이 나타난다. 따라서 濕熱이 鬱蒸되어 일어난 陽黃(熱重濕輕)에 使用하고, 脾胃陽虛하여 寒濕이 內鬱하여 生하는 陰黃에는 마땅하지 않다.^{2,3,13-15)}

本方의 該當 條文에서는 汗에 대한 言及이 없으나 上記한 症狀들이 모두 無汗으로 熱이 外部로 發散되지 않아 内部에 鬱結됨에 따라 나타난 證狀들이므로 無汗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으며 腹微滿이나 小便不利 等の 症狀이 나타나지 않고 發黃 症狀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濕鬱이 甚하지 않고 熱邪가 比較的 重한 熱重濕輕證이라 볼 수 있다.

方 中에, 梔子는 煩熱을 清케 하고, 小便을 따라 三焦의 熱을 내보내 瀉熱하며²⁵⁾, 黃柏은 苦寒한 性味로 苦味로는 化濕하고, 寒性으로는 清熱하여, 梔子와 配合되어 清熱化濕의 效果를 높이고²⁵⁾, 甘草는 和中하면서 梔子, 黃柏의 苦寒한 性味가 胃를 傷하게 하는 弊端을 막아준다²⁵⁾. 三味가 協助하여 濕熱을 清泄시키는 效果를 增大시켜, 熱이 濕보다 重하고, 正氣가 多少 衰하고, 陰分의 伏熱로 因한

黃疸에 이른 者에게 뛰어난 效果가 있다.

《傷寒尋源》²⁶⁾에서는 “黃疸로 因한 發熱은, 熱이 이미 外部로 發泄되는 中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熱이 內에서 始作해 外로 나타나는 것은 內治해야 하므로 梔子, 柏皮로 直接 清熱한 것인데, 內熱이 清泄하게 되면 發黃이 스스로 除去되는 것이다. 甘草를 쓴 것은 藥을 이끌어 中焦에 머물게 하여 清熱을 通해 導濕을 圖謀하기 위해서 이다.”라고 하였다.

綜合하면, 本方은 清熱除濕의 治法으로, 邪熱이 小便을 따라 排出케 하여 濕熱을 除去함으로, 黃疸이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處方이다.

3) 類方鑑別

(1) 茵陳蒿湯과 區別

茵陳蒿湯은 臌痞, 嘔惡, 苔黃膩, 大便秘結 等 濕熱이 比較的 重한 境遇에 쓴다.

(2) 麻黃連翹赤小豆湯과 區別

麻黃連翹赤小豆湯은 濕熱과 表邪가 兼하여 나타나는 “身必發黃”과 發熱, 無汗, 頭身痒 等の 表證을 除去하는 데 쓴다.

以上の 세 가지 方에 대하여 《醫宗金鑑》¹⁾에서는 “傷寒으로 身黃發熱할 境遇, 無汗의 表證이 있으면 麻黃連翹赤小豆湯으로 發汗케 하고, 成實한 裏證이 있으면 茵陳蒿湯으로 下하고, 밖으로 汗해야 할 表證이 없고 안으로 下해야 할 裏證이 없으면 梔子柏皮湯으로 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하여 가장 正確하게 表現하였다.

4) 臨床應用

現代臨床에서는 急性黃疸初期¹⁸⁾에 使用하여 主要 效果를 거두고 있으며, 濕熱蘊鬱로 因한 尋麻疹, 皮膚瘙癢, 膽囊炎, 膽石症 等에도 良好한 效果가 있다.

▷ 臨證加減法

① 傳染性 肝炎, 特히 急性黃疸肝炎에는 本方에 茵陳蒿, 鬱金を 加하면 顯著한 效果가 있다.

② 濕熱黃疸肝炎에는 本方에 茵陳蒿, 大棗를 加해서 煎湯하여 五味子粉에 沖服하면 顯著한 效

18. (1) 溫病發黃을 治療한다. (《肘後方》) (2) 頭微汗, 小便利, 微發黃한 者, 濕熱相搏微한 者는 마땅히 이를 服用한다. (《宜明論》)

果가 있다.

㉑ 急性菌痢에는 本方에 白頭翁湯을 合하거나 또는 馬齒見을 加하면 良好한 效果가 있다.

▷ 衍方

㉒ 黃連解毒湯：本方에서 甘草를 去하고 黃連, 黃芩을 加하여 三焦熱盛으로 大熱煩狂, 口煩咽乾, 錯語不眠, 或吐衄發斑, 癰腫疔毒, 舌紅苔黃, 脈數有力의 症狀이 된 것을 治療한다(《外臺秘要》).

【文獻參考】

(1) 本方에 茵陳蒿, 鬱金を 加하면 傳染性 肝炎에 顯著한 效果가 있다. 肝炎과 接觸史가 있고 食慾不振, 精神疲乏, 胸脇不暢, 四肢無力 或 頭昏 等의 症狀이 있을 때 쓰면 確實한 豫防效果가 있는데, 但 梔子是 반드시 生用한다¹⁹⁾.

(2) 中醫의 辨證論治에 의해 적지 않은 病例를, 甚하면 同一한 病例의 각기 다른 段階에까지도 高糖治療를 반드시 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肝炎患者는 高糖治療를 한 後에 惡心厭食, 嘔吐 等의 症狀이 오래 동안 없어지지 않고, 甚하면 胃脘飽悶, 黃疸이 오래 없어지지 않고 黃疸指數가 더 높게 나타나고, 肝腫의 消退가 遲延되고 肝機能의 恢復時間이 延長되는 證狀이 나타나는데 中藥의 茵陳蒿湯, 梔子柏皮湯 等을 써서 治療하고 同時에 甘膩한 飲食을 禁하여 多數의 患者의 症狀, 體徵, 肝機能이 많이 緩解되었다. 이에 따라 高糖으로 肝을 保護하는 療法을 否定하고 肝炎을 治療하는 基本療法으로 삼지 않는다. 濕熱로 인한 陽黃實證의 症狀으로 惡心嘔吐, 脘悶不舒, 厭食 等 消化系統의 機能紊亂이 嚴重한 者, 或 身目鮮黃, 便秘, 舌苔黃燥厚膩滑 或 腐蝕, 口苦乾, 發熱, 神昏譫語, 小便短赤, 脈滑數·滑實·沈遲有力한 者는 모두 糖類의 甘溫甘膩한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이는 粘滯滋補한 性質로 因해 반드시 化熱感燥하여 濕邪가 留滯하므로 病變이 오히려 더해지기 때문이다. 肝炎의 어떤 段階에서는 中醫辨證에 의하여 高糖治療가 適當한 境遇가 있는데, 消化系統의 症狀이 消失되어 知飢欲食, 黃疸不深, 無發熱, 口苦, 口乾,

小便清長 或 淡黃轉白, 肝腫進行性減退, 脈轉和緩한 것은 邪退正虛한 標示이므로 高糖治療로 調中補土하여 益氣生津하게 한다²⁰⁾.

(3) 本方으로 21例의 細菌性 痢疾을 治療하여 良好한 效果를 거두었는데, 一般的으로 1劑에 나았고 最多 2劑면 나왔다²¹⁾.

(4) 本方에 茵陳蒿, 茵草, 鬱金 等을 加해 30例의 鉤端螺旋體病으로 因한 發黃을 治療해 보니 效果가 滿足스러웠다. 鉤端螺旋體病의 發黃은 大개 陽黃에 屬하는 것으로 認定된다. (30例中 1例만 陰黃에 屬했다) 中醫에서 疸黃, 急黃, 濕疸에서는 表症이 많지 않고 裏症이急하므로, 麻黃連翹赤小豆湯 等을 妄行해서는 안된다²²⁾.

5) 臨床例

(1) 陽黃

證狀：脈沈, 濕熱在裏, 鬱蒸發黃, 中痞惡心, 便秘尿赤한 三焦病을 앓았다.

治療：杏仁, 石膏, 半夏, 薑汁, 山梔子, 黃柏, 枳實汁을 服用한 後 治愈되었다²³⁾.

▷ 10歲의 男兒.

證狀：黃疸性 肝炎을 오래 앓아 黃疸指數가 相當히 높았다. 證狀은 身黃染, 心煩, 便溏, 兩足發熱, 舌苔黃하였다.

治療：梔子柏皮湯을 몇 劑 服用한 後 黃疸이 없어지고 모든 症狀이 漸次 治愈되었다²⁴⁾.

(2) 黃疸潮熱

性別 및 年齡：男, 42歲.

證狀：肝硬化 早期로 下午輕度潮熱, 胃脘滿, 鞏膜皮膚發黃, 小便赤澀, 脈弦數, 舌苔滑膩黃 等의 證狀이 있고, 肝機能檢査에서 黃疸指數가 높았다.

辨證：肝中鬱熱 發黃에 屬한 것이다.

治療：梔子柏皮湯에 疏肝和胃劑를 加해 治療하였다. 生梔子10g, 茵陳蒿15g, 桃仁15g, 甘草3g으로 3劑 服藥한 後 下午潮熱이 일어나지 않고 小便이 增加하고 眼睛皮膚黃疸이 漸次 輕減하였다. 13劑

20) 《福建中醫學》1964;6:29

21) 《福建中醫藥》1964;4:3

22) 《廣東中醫》1960;11:519

23) 《臨證指南醫案》

24) 《傷寒論詮解》天津科學技術出版社,1983

19) 《江蘇中醫》1962;2:17, 《上海中醫藥雜誌》1959;9:22

를 服藥한 後에는 鞏膜, 皮膚, 舌苔의 黃色이 顯著히 없어지고 血液檢査上 黃疸指數가 顯著히 내려갔다. 後에 健脾和胃劑로 調理하였다. (《傷寒論臨床實驗錄》)

(3) 細菌性 痢疾

性別 및 年齡 : 男子, 24歲

證狀 : 腹痛이 發生하고 左下腹部에 乙狀結腸이 있는 處에 壓痛이 顯著하고 泄瀉가 黃色稀便하다가 膿血性 粘液便으로 바뀌었는데 少量씩 하루에 18回까지 있었다. 裏急後重, 畏寒, 頭痛, 惡心, 四肢無力 等の 證狀을 同伴하였다.

治療 : 梔子柏皮湯을 服用한 後 모든 證狀이 消失되었다²⁵⁾.

6) 傷寒論原文

262. 傷寒身黃發熱, 梔子蘗皮湯主之.

7) 鍼刺配穴

竅陰, 關衝, 膽俞, 腕骨穴을 取하여 開鬱清熱, 利濕去黃시킨다

III. 結 論

1. 梔子歧湯類는 모두 汗, 吐, 下後 等の 誤治 或은 熱病 後期에 餘熱未盡, 鬱結胸膈이 共通 病因, 病機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諸家들은 誤治로 인한 까닭에 實證의 類이 아닌 虛煩證을 治한다고 言及하였다.

2. 共通病機와 더불어 梔子歧湯은 單純性胸膈鬱熱, 梔子甘草歧湯은 中氣損傷, 梔子生薑歧湯은 胃中水飲과 胃氣不和, 梔子乾薑湯은 脾陽受損 中焦寒積, 梔子厚朴歧湯은 中焦氣滯, 枳實梔子歧湯은 病後勞復에 氣機不暢 等 相異한 病機를 나타내었다.

3. 梔子歧湯類는 虛煩不得眠, 心中懊憹, 起臥不安, 身熱 等이 共通症狀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梔子甘草歧湯은 少氣, 梔子生薑歧湯은 嘔吐, 梔子乾薑湯은 下利, 梔子厚朴歧湯은 腹滿, 枳實梔子歧湯은 心下痞塞 等の 兼證을 나타내어 이들을 相互

區別하는 主症으로 認識되었다.

4. 藥物의 構成에 있어서는 梔子, 豆豉가 共通으로 構成되어 鬱熱을 清게하고, 梔子甘草歧湯은 甘草를 加하여 益中氣하며, 梔子生薑歧湯은 生薑을 加하여 散水氣하며, 梔子乾薑湯은 宜透하는 香豉를 去하고 乾薑을 加하여 溫脾散寒하며, 枳實梔子歧湯은 枳實을 加하여 行氣消痞하고, 清漿水를 用하여 調中調胃하였다.

5. 臨床의 活用에서 梔子歧湯類는 共通의 傷寒 或 熱病 後에 나타나는 餘熱로 인한 胸煩, 心中懊憹의 症狀에 活用되었고, 梔子歧湯은 食道炎과 夏節期 消化障礙가 나타나는 急性胃炎, 胃痛 等に 活用한 報告가 있었으며, 梔子甘草歧湯은 傷寒 飲食으로 인한 食中毒과 急性食道炎에, 梔子生薑歧湯은 胃痛을 同伴한 胃炎에, 梔子乾薑湯은 疫利, 胃痛便瀉等에 使用됨으로써 주로 胸膈部의 痞悶感을 同伴한 食道炎과 胃炎에 活用되었다.

參 考 文 獻

1. 吳謙 :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2. 文瀾典外 :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pp. 47, 110, 280, 1998.
3. 姜鎮春外 : 傷寒學, 서울, 一中社, p.88, 87, 110 1992.
4. 柯琴 :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27-54, 1986.
5. 尤在涇 : 傷寒貫珠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34-42, 1978
6. 陳修園 : 金匱要略淺註, 太平書局出版, pp. 131-115, 1975.
7. 金聖勳外 : 東醫病理學, 大田, 한림원, pp. 35, 171, 1994.
8. 成無己 : 注解傷寒論, 珍傲宋版印, p. 87-88, 110. 115
9. 丹波元簡 : 傷寒論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02-112, 1983
10. 喻嘉言 : 喻嘉言醫學三書,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pp. 26-27, 1984.

25) 《福建中醫藥》1986:4:3

11. 丹波元堅 : 傷寒論述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04-116, 203, 1983.
12. 劉渡舟 主編 : 傷寒論辭典, 북경, 解放軍出版社, pp. 227-229, 1988
13. 冉雪峰 : 冉注傷寒論,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 pp. 7-10, 1982.
14. 杜雨茂 : 傷寒論辨證表解, 西安, 陝西科學技術出版社, pp. 114-118, 1984.
15. 李培生 主編 : 傷寒論講義,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pp. 217-228, 1984.
16. 홍성범 : 陽明病에 對한 四象醫學의 考察, 內科學會誌, Vol.13, No.2, p.95, 1992.
17. 宋炳基 : 傷寒論과 思想說의 比較, 四象醫學會誌, Vol .7, No.1,p.1 1995.
18. 李碩衡 : 傷寒六經病中 少陰經病의 病態와 少陰人 體質에 關한 病理的 比較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 .1, No.1, p.55, 1995.
19. 박찬국 : 傷寒論 三陰三陽에 關한 研究, 原典醫史學會誌, Vol.7, No.1, p.74, 1993.
20. 金琦顯 : 傷寒溫病 論爭의 概括的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Vol.11, No.1, p.95, 1991.
21. 金俊錡 : 傷寒六經中風에 對한 文獻的 考察, 大韓東醫病理學會誌 Vol.10, No.1, p.32, 1996.
22. 孫甲鎬 : 傷寒小柴胡湯類의 病理, 辨証, 臨床 및 實驗에 對한 文獻的 考察, Vol.15, No.2, p.445, 1994.
23. 채병윤 : 傷寒論 陽明病에 있어서 承氣湯證에 關한 研究, Vol.6, No.1, p.71, 1993.
24. 張機 : 仲景全書, 大星文化社, 1989.
25. 全國韓醫科大學教授共編著 : 本草學, 永林社, 1991.
26. 李文瑞 外 : 傷寒論湯證論治, 中醫科學技術出版社, 1993.